

삼례 = '청년+문화예술관광'

박성일 완주군수 "‘으뜸 관광도시 완주’ 실현 견인하는 곳으로 육성할 것"

박성일 완주군수가 삼례읍을 청년과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일 군수는 21일 삼례읍 연초방문에서 "삼례는 그간 완주군의 중심지이자, 역사와 문화예술의 핵심지역이었다"며 "앞으로 삼례가 '으뜸 관광도시 완주' 실현을 견인하는 곳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2017년 주요 핵심사업으로 삼례를 '청년+문화예술관광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역 재생의 대표 브랜드이자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삼례시장 청년몰(청년장터), 청년 셰어하우스, 청년 거점공간 등 청년 허브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의 활성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도 약속했다.

박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서여 및 상신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삼례농협 산지유통센터 등 민생현장 방문의 일정도 진행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에서 '승마체험' 즐겨보세요

장수승마장 · 장수승마체험장, 수~일요일 운영

장수군에서는 장수승마장 및 장수승마체험장에서 내방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요일부터 일요일(월·화 제외)까지 승마체험장을 운영한다.

훈훈한 시골 인정, 신선한 공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수승마체험은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신체적으로도 몸의 균형감을 잡아주고 근력,

지구력, 심폐기능 향상 등 전신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군은 승마체험장 외에도 말역사 체험관을 2016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해 왔으며, 곧 게르하우스 5동, 말역사체험관 1동, 전망대 1개소, 주차장, 말조각공원, 조경 및 부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바다분수 등이 4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동휠체어·스쿠터 '태양광충전기' 지원 신청

장수군, 3월~12월까지 접수... 기초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 50만원까지 지원

장수군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들에게 태양광충전기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다.

장치를 원하는 신청자는 관내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 장애정도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20명에게 태양광 충전기 장착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인원 한도에 따라 신청이 조기 완료될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태양광 충전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영구적이고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이동 간 편의를 제공하고 어느 곳에서나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을 통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스쿠터)는 자신이 목격하는 장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신체 일부와 같은 존재로 보장구의 주

동력인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고 방전 등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등 관리가 쉽지 않은 예로서를 해소하고자 본사업을 실시해 왔다.

장수군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바깥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충전기 지원사업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350-23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 봉동 상자기 공원,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등구나무 아래 피어나는 행복공간 프로젝트' 공모 선정

완주군 봉동을 상자기 공원이 사람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완주군의 경관정 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3억5000만원의 지원받게 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지역의 환경 및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선정으로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공공디자인 도시 구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 관광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노인 자살 예방 위해 두 기관 손 잡아

진안 정신건강증진센터-북한노인복지타운 복지관, 업무 협약

진안군은 21일 진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진안군북한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이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안군 노인자살예방과 치료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자살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촘촘한 발견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정서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관내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지원 확립의 일환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자살률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북은 전국보다 높은 수치이며 진안군 역시 2015년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0.6명으로 전북 지자체 중에서 6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노인자살률에 비해 한국 노인자살률이 20배나 높은 실정으로 노인인구가 31.7%를 차지하고 있는 진안군의 경우 노인자살예방

사업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노인자살의 경우 질병, 경제적 빈곤,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고독·외로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서적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총동적인 자살을 막기 위한 접근성 사전차단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진안군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정서적 소외감으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우울증 예방 집단프로그램인 '마음 꽃 피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를 통해 자살위험수단 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웃에 관심을 갖는 작은 실천으로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승호 보건소장은 "이 협약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다 시한번 살아보게 만드는 큰 힘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도록 자살예방사업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3월22일까지 신청

완주군은 3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2012년 또는 그 이전에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로서,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이다.

지원내역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1%의 고정금리 융자지원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선정은 완주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유무 등을 사전검토 후 전문평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이 7차 산업화로 하나 된 무주 실현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마을회관, 노인장, 경로당, 도농교류센터 등)하고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20곳(급식 인원 500여 명)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3월~)할 계획이다.

이 때 마을규모(농가수, 인구수, 영농규모)가 큰 마을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 참여도(급식 참여인원, 급식 참여비율, 농업인 참여비율)가 높은 마을, 사업여건이 우수한 마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수혜가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마을을 지원하던 것을 20개 마을(무주읍 5, 설천면 1, 적상면 7, 안성면 4, 부남면 3)로 늘렸으며 연 36일을 지원하던 것을 40일로 일수를 확대한다.

무주군 부농기획 이두명 담당은 "급식 준비와 영농활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마을과 일수를 확대했다"며 "삼례농정의 일환으로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추진하는 공동급식이 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이장 주요 사업장 견학

진안군은 농한기를 맞아 진안읍을 선두로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1개 읍면, 이장 30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지역 내 이장들이 진안의 주요 현안사업장 및 소득사업장, 시설물을 둘러보며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한국과 동서양을 망라한 다양한 형태의 세계 희귀 가위 1,500여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 '진안가위박물관' 견학부터 시작했다.

이어서 산악초타운 야생화단지, 진안군의료원, 홍삼연구소, 공공하수처리장 등 주요 사업장과 (썬)애농, 마령 토마토 하우스, 백운 딸기하우스 등 소득사업장을 방문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견학은 담당과장 또는 담당에게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추운날씨에도 참여해주신 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이장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